현대소설연구(제85호)
The Journal of Korean Fiction Research
http://doi.org/10.20483/JKFR.2022.03.85.307

역사의 소설화, 소설의 역사화

–이병주 소설의 의미

김 한 식*

요약

이병주의 문학은 '학병세대'라는 담론과 함께 문학 연구의 중심으로 들어왔다. 실제 학병을 경험했던 그는 식민지와 해방, 한반도와 일본이 겹치는 시간과 공간을 소설을 통해 재현해 내었다. 학병의 경험은 작가 이병주의 정체성을 형성한 가장 중요한 사건이었다. 이병주에게 학병세대 이야기는 일종의 인정 투쟁 성격을 띠고 있었다. 그의 소설들은 주로 가까운 과거의 의미를 추적하는데, 작가의 사적인 경험과 타인의 경험을 겹쳐 서술함으로써 기억의 정당성, 세대의 정당성을 인정받으려 하였다. 여기에는 기록과 수기를 허구와 통합하여 소설을 역사로 남기고자 하는 욕망, 허구를 통해 기록이나 수기와 경쟁하려는 욕망이 담겨 있었다. 이병주는 현재의 관점에 충실한 작가였는데, 이 현재의 관점은 현실의 승인에 기초하고 있었다. 식민지 시대 체득한 교양 주의 정신도 그와 그의 소설에 큰 영향을 미쳤다. 그의 소설에서 노골적으로 드러나는 반공주의도 이 식민지 교양 주의와 멀리 떨어져 있지 않았다. 그의 교양은 독서를 통해 얻은 서양의 교양이었다. 그의 소설에서는 세계주의를 자주 발견할 수 있는데, 그의 세계주의는 민족주의를 극복한 것이라기보다는 경험 없이 교양으로 습득해버린 일종의 선험적 감각이었다.

주제어: 학병, 학병세대, 인정 투쟁, 교양 주의, 반공주의, 세계주의, 식민지, 수기

* 상명대학교 한국언어문화전공 교수

목차

1. 이병주와 학병세대
2. 수기와 증언 그리고 소설
3. 운명과 변명
4. 우애와 이념
5. 수재의식과 교양 주의
6. 소설과 역사

1. 이병주와 학병세대

이병주[1]는 1921년 경남 하동군 북천면 화정리 속칭 장태골에서 태어나 진주 공립농업학교를 졸업했다. 이후 일본 유학과 학병을 경험하고 1946년 3월 상해에서 미군 LST 선을 타고 귀국하였다. 모교인 진주 농림중학교 교사, 초급 진주 농과대학 강사, 해인대학 교수를 지냈고, 1955년 부산 〈국제신보〉에 입사하여 주필 겸 편집국장을 역임하였다. 이때 그는 '조국은 없다. 산하가 있을 뿐이다.'[2]라는 문제의 구절이 담긴 글을 발표하기도 했는데, 중립국론을 펼친 그는 남한 정권을 부정했다는 혐의로 체포되어 군사 정권의 혁명재판소에서 재판을 받았다. 10년 형을 받았으나 2년 7개월 후 풀려났고, 이후 본격적으로 소설가의 길을 걷기 시작했다. 1965년 『세대』에 중편 「소설 · 알렉산드리아」를 발표한 후,[3] 1992년 작고할 때까지 그는 80권이 넘는 소설집을 발간하였다.

그는 대중적으로 성공을 거둔 작가였지만, 평단에서 큰 관심을 받지는 못했다.[4] 활동 당시 이병주 소설에 대한 논평들에서는 역사를 재료로 하

1) 탄생 100주년 작가 기념 발표를 위해 쓴 본 논문의 목적은 이병주 문학이 갖는 문학사적 의의를 연구사를 통해 정리하고 평가해보려는 데 있다.
2) 이병주, 「조국의 부재」, 『새벽』, 1960.12.
3) 실제로 이병주가 발표한 첫 작품은 『내일 없는 그 날』(〈부산일보〉, 1957.8.1.~1958.2.28.)이다. 그러나 작가 본인과 평자들은 「소설 · 알렉산드리아」를 실질적인 첫 작품으로 꼽는다.

여 사실 기록의 문학을 추구한다는 긍정적인 평가와 소설적 미학에 대한 고민이 미진하거나 그 의식이 지나치게 관념적, 혹은 모순적이라는 비판을 동시에 발견할 수 있다. 작가가 직접 체험한 사실을 재료로 시대를 증언하는 데에서 이병주 문학이 갖는 의미를 찾는 글도 있었다. 다수는 대중 작가로서 그의 면모에 집중한 평가들이었다. 이병주 사후 한참의 공백기가 있었으나 2005년 이병주기념사업회의 출범과 2006년 이병주 소설 전집 출간을 기점으로 이병주와 그의 소설 연구는 활기를 띠기 시작했다.[5)]

무엇보다 이병주의 문학은 '학병세대'[6)]라는 담론과 함께 문학 연구의 중심으로 들어왔다. 실제 학병을 경험하기도 했던 그는 식민지와 해방, 한반도와 일본이 겹치는 시간과 공간을 소설을 통해 재현해 내었다. 주지하다시피 1965년 국가에 의해 주도된 한일협정은 안보와 경제를 위해 지나온 식민 역사에 대한 기억을 외면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다른 한편에서는 학병의 기억을 다시 불러내기도 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소설 『관부연락선』과 『지리산』은 이병주를 학병세대의 대표 작가로 자리 잡게 했다.

'학병세대'라는 용어는 이병주 소설을 평가하는 데만 중요한 것이 아니다. 학병의 경험은 실제 작가 이병주의 정체성을 형성한 가장 중요한 사건이었다.[7)] 그의 소설에서 중요하게 반복되는 모티프 역시 이 '학병'이었

4) 정미진은 이병주 소설에 대한 당대의 관심을 베스트셀러 목록과 매체 전환을 통해 확인하였다. 그가 작성한 표에 의하면 이병주 소설 중 영화화된 작품이 4편, 드라마화된 작품이 『지리산』, 『산하』 등 21편이다. 그 외 연극과 라디오 소설로 활용된 작품도 2편이다. (정미진, 「이병주 소설 연구」, 경상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7, 2면 각주 5번)

5) 정미진, 위의 논문, 2-3면.

6) 일제가 전쟁 수행을 위해 조선인 학병 입영을 결정한 것은 1943년 10월이었다. 사범계 및 이과계를 제외한 문과계 대학, 전문, 고등학교 재학 중의 조선인 학생에게 징집 영장을 발급한 것은 같은 해 11월 8일이었다. 그중 총 4,385명이 일제히 입대한 시기는 1944년 1월 20일이었다. (김윤식, 『한일 학병세대의 빛과 어둠』, 소명출판, 2012, 41면)

7) 이병주는 메이지 대학에 처음 설치된 전문부 문과 별과생이었다. 이병주는 학병으로 중국 소주에 배치되었는데, 그가 소속된 부대는 방첩명 노코(矛) 2325부대 60사단 치중대였다. 중지(中支)에 있는 인텔리 부대로 총 400여 명의 편재였는데 여기에는 조선인 학병이 60명이나

다. 대표작 『관부연락선』, 『지리산』은 말할 것도 없고, 유고작인 『별이 차가운 밤이면』도 학병세대를 주인공으로 내세운다. 특히 『관부연락선』의 유태림은 이병주의 분신으로 여겨진다. 『산하』의 인물 이동식도 학병세대라 불릴만한 인물이다. 그의 정체성을 형성한 다른 하나는 「소설 · 알렉산드리아」에 처음 등장한 필화이다. 이 두 경험은 이병주 소설의 출발점이자 종착점이라 할 수 있다.

학병세대를 대표하는 글쓰기가 소설은 아니다. 양으로는 수기와 증언이 소설을 압도한다. 경험의 강렬함과 직접성이 두드러진 것이 이 세대의 특징이라 보면 자연스러운 현상이라 할 수 있다. 이병주는 소설이라는 장르를 택해 자신 혹은 자기 세대의 경험을 기록한 몇 안 되는 예외에 속했다. 하지만 장르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이병주 소설은 수기나 증언 등 학병세대의 다른 글과 그리 멀리 있지 않았다. 그는 소설 안에 수기와 증언을 그대로 가져와 썼을 뿐 아니라 사실을 각주로 인용하기도 했다. 사건과 인물을 다루는 데 있어 허구와 사실 사이에 벽을 두지 않은 셈이다. 이러한 서술 전략은 워낙 두드러져서 그의 소설에서 미학적 결함으로 지적되는 특징들을 부차적인 문제로 만들기도 한다.[8)]

이병주에게 학병세대 이야기는 일종의 인정 투쟁 성격을 띠고 있었다. 그의 소설들은 주로 가까운 과거의 의미를 추적하는데, 작가의 사적인 경험과 타인의 경험을 겹쳐 서술함으로써 기억의 정당성, 세대의 정당성을

끼어 있었다. 이병주는 잔류했지만 학병 중 반 이상이 해방 전 탈출했다. 이 부대의 학병 중에서 육군참모총장을 비롯한 수명의 장군이 나왔다고 한다. (김윤식, 『이병주 연구』, 국학자료원, 2015, 39면)

8) 추선진은 이병주 소설의 서술 전략을 일곱 가지로 정리한다. 정리하면 ① 다양한 언어 형식, 글쓰기의 형식들이 그대로 인용되어 나타난다, ② 작가의 모습이 소설 속에 등장한다, ③ 대부분 자전적 서사다, ④ 실존 인물이 등장한다, ⑤ 액자식 혹은 중층적 서사 형식을 보인다, ⑥ 텍스트 간의 중첩이나 반복이 일어난다, ⑦ 우연성이 남발된다, 이다. (추선진, 「이병주 소설 연구」, 경희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2, 44-49면) 여기서 ⑥과 ⑦은 분명히 미학적 결함으로 지적될 만하다. 나머지 서술 전략들에서도 세부적으로 ⑥과 ⑦에서 비롯되는 문제들이 나타난다.

인정받으려 하였다. 공소장, 판결문, 편지, 대화, 일기 등의 다양한 담론 형식을 가공하지 않은 채 소설로 끌어오는 이유도 이 때문이었다. 여기에는 기록과 수기를 허구와 통합하여 소설을 역사로 남기고자 하는 욕망, 허구를 통해 기록이나 수기와 경쟁하려는 욕망이 담겨 있었다.

기억을 현재의 관점에서 재구성한다는 점에서 소설과 역사는 비슷한 면이 있다. 이병주에게 이 현재의 관점은 현실의 승인에 기초하고 있다. 한일협정이라는 큰 사건 이후 출간된 『관부연락선』, 반공 시대의 『지리산』과 『남로당』 그리고 정권의 몰락 직후 쓰인 『산하』와 『그해 5월』이 그렇다. 계급 문제가 본격적으로 대두되기 시작한 시기에 연재된 『별이 차가운 밤이면』 역시 크게 다르지 않다. 현재의 주류 시각 혹은 정치에 부합하는 자리에 서서 과거를 다시 의미화하는 일이 그의 소설 쓰기였다. 그의 소설에서는 지난 경험을 반성하기보다는 운명이라 여기고 수긍하거나 변명하는 서술자를 자주 보게 된다. 이는 쉽게 자기 긍정으로 넘어가기도 하는데 우애라는 이념, 교양이라는 관념은 이런 자기 긍정을 위해 중요하게 활용된다.

본론에서는 그의 대표작이라 할 『관부연락선』과 『지리산』을 통해 이병주 소설의 이러한 특징들을 상세히 살펴보려 한다.

2. 수기와 증언 그리고 소설

세대의 정체성은 공통의 서사에서 온다. 그 서사는 역사에서 기원한 것일 수도 있고 신화에서 기원한 것일 수도 있는데, 시대에 맞게 새로 쓰이곤 한다. 개인의 정당성 역시 긍정할 만한 자기 서사에서 온다. 이병주에게 소설 쓰기는 개인의 정당성을 확인하기 위한 작업이었다. 알려진 대로 데뷔작인 「소설 · 알렉산드리아」에서부터 이병주 소설에는 자전적 요소가 많이 포함되어 있다. 그 자전적 인물을 통해 현재의 자기를 확인하고 드

러내는 과정이 곧 그의 소설 쓰기였다. 이는 세대로서의 정체성 확인보다 조금 더 정교한 작업인데, 세대 안에서도 이병주는 일본 육군으로 잔류하여 해방을 맞은 학병이었다. 해방 이후 그가 세대 경험의 중심에 설 수 없었던 것은 분명하다. 해방 직후 학병 서사를 이끈 인물들은 학병을 탈출하거나 기피한 이들, 그리고 사상적으로 좌익인 이들이었다.[9)]

학병세대가 자신들의 경험을 기록하는 대표적인 방법은 수기와 증언이었다. 학병 수기는 해방 직후부터 꾸준히 간행되었다. 잡지 『학병』(1946년), 윤재현의 『사선을 헤매이며』(1948), 김이현 · 권정식의 『학병 탈출기』(1948), 신상초의 『탈출』(1966), 장준하의 『돌베개』(1971), 학병집단증언집 『청춘 만장』(1973), 태윤기의 『회상의 황하-피어린 독립군의 항쟁 수기』(1975), 김준엽의 『장정』(1987)이 대표적이다. 학병들의 증언을 모은 『학병 사기』(1987~2001)는 이전의 책들을 압도하는 규모로 간행되었다.[10)] 증언집이나 수기집에 실린 학병 당사자들의 글들은 자신들이 '조선의 장래를 위해 지원'했지만, 결국 '민족의 희생양'이 되었음을 강조하였다.[11)] 한편, 학병 경험을 다룬 소설 발표는 1960년대에 집중되었다. 한운사의 『현해탄은 알고 있다』(1961), 김광식의 『식민지』(1963), 이가형의 『분노의 강』(1964), 이병주의 『관부연락선』(1968)이 차례로 간행되었는데, 수기나 증언과 달리 소설은 학병을 영웅이 아닌 나약한 지식인으로 형상화하였다.

9) 해방 직후 학병 동맹을 적극적으로 원조해준 이는 여운형, 임화 등과 같은 인공과 조선공산당 관련 인사들이었다. 『학병』(1946.1) 창간호에는 여운형과 임화의 글이 게재되었다. 학병 동맹의 지도부인 왕익권 · 이춘영의 성향이나 활동의 성격 역시 좌익 색채를 띠고 있었다. 학병의 70%가 가입했다는 학병 동맹의 정당성은 자신들을 사지로 내몬 친일파나 민족 반역자와 거리를 두는 방향에서 찾아질 수밖에 없었다. 그런 만큼 인공이나 조선공산당과의 연계는 자연스러웠다고 볼 수 있다. (이혜령, 「해방(기): 총 든 청년의 나날들」, 『상허학보』, 2009.10, 24면)

10) 더 자세한 학병 서사 목록은 조영일의 박사학위논문 「학병 서사 연구」(서강대학교 대학원, 2015)를 참조할 수 있다.

11) 손혜숙, 「학병의 기억과 서사」, 『우리문학연구』66, 우리문학회, 2020.4, 277면.

학병 수기의 작가들은 주로 기피자와 탈출자들이었다. 학병을 피해 도망 다니다 귀환한 이들은 학병 기피를 결정하기까지의 갈등과 고뇌, 기피 후의 불완전한 행적을 서사화하였다. 학병 탈출자들은 학병의 유형을 이분하여 지원병이나 나약한 동료 학병을 배제하고 그들과 다르다는 자신들의 우월의식을 영웅적 서사를 통해 드러냈다.[12] 『돌베개』와 『장정』은 대중적으로 잘 알려진 학병 수기이다. 둘은 단순한 개인의 수기 이상의 대접을 받았는데, 『돌베개』는 항일정신을 상징하는 저서로 읽혔고, 『장정』은 중경 시절 임시정부의 활동을 엿볼 수 있는 역사적 문헌으로 평가되었다.[13] 『사상계』 편집자 장준하, 역사학자 김준엽이라는 이름의 후광이 이 책들을 개인의 경험 이상의 것으로 만드는데 작용한 면도 없지 않다. 엄영식의 『탈출』(2005)에 따르면 조선의용군 내에 20여 명의 탈출 학병이 있었고, 김준엽의 『장정』에 따르면 한국광복군 간부훈련반에는 탈출한 학병이 33명 있었다고 한다.[14]

수기와 달리 학병소설들은 실제 경험과 거기에서 비롯된 자긍심과 부끄러움 그리고 피해의식 등 다양한 개인의 감정을 두루 표현하였다. 그러면서도 역사적 사실과 개인의 경험을 다양한 방식으로 삽입하여 사실성을 높였다. 이가형의 『분노의 강』은 버마 전선의 경험, 한운사의 『현해탄은 알고 있다』는 일본행, 이병주의 『관부연락선』[15]은 중국(소주)행을 다

12) 손혜숙, 위의 논문, 278면.

13) 조영일, 「학병의 정신구조에 대한 일고찰」, 『서강인문논총』47, 2016.12, 133면.

14) 노현주, 「'연안'으로 간 학병들:학병세대와 코뮤니즘」, 『열린정신인문학연구』, 원광대학교인문학연구소, 2016.8, 225면.

15) 『관부연락선』은 서술자인 '나'가 동경 유학 시절 동창이었던 일본인 E로부터 유태림의 행방을 수소문하는 편지를 받는 것으로 시작한다. E는 유태림이 쓴 '관부연락선'이라는 제목의 원고를 맡아 가지고 있다며, 종전 직후부터 실종 때까지 유태림의 동향을 알려 달라고 '나'에게 부탁한다. E가 소지한 유태림의 원고는 유럽 여행을 마치고 돌아와 한반도와 일본 관계의 '상징적 통로'인 '관부연락선'을 탐구하는 내용이다. 학병에 지원한 이후와 해방 후에서 전쟁기에 이르는 유태림의 행적은 직접 들은 이야기, 전언, 추측에 근거해 '나'가 기술한다. 중국 소주에서 현지 제대를 한 유태림은 정치와 이념에 거리를 두고 어떤 군대나 정당에도 가입하지 않으려고 한다. 1946년에 귀국한 후 C고등학교 교사로 초빙된 유태림은 좌우익이 충돌하

루었다. 이중 『관부연락선』은 기피자도 탈출자도 아닌 학병, 일본군으로 해방을 맞은 이들의 서사이다. '일본군의 만행'이나 '끔찍한 용병 경험'과는 거리가 먼 이야기이다.

사실 일본군으로 해방을 맞은 학병들은 소설에 비교적 잘 어울리는 인물군이다. 그들에게는 탈출한 학병들에게는 없는 내면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부끄러움과 함께 자기변명의 욕망 그리고 반성과 회한의 감정이 그들의 내면을 채우고 있었다. 이에 비하면 탈출한 이들이 가진 영웅 심리나 모험담, 기피자들이 가진 당당함과 고생담은 소설과 썩 잘 어울리지는 않는다. "역사가 봉우리를 기록한다면 소설은 골짜기를 기록한다"고 한 이병주의 말을 원용하자면, 탈출자나 기피자는 봉우리에 해당하고 잔류한 이들은 골짜기에 해당한다. 골짜기는 봉우리와 비교할 수 없는 깊이와 다양성을 가지고 있기 마련이다.[16] 잔류한 학병이 가진 사상이나 감정은 수기나 증언처럼 즉각적으로 표현하기 어려운 성질의 것이었으며, 단순하게 정리하기 어려운 복잡한 양상을 띠고 있었다.

이처럼 소설은 수기가 갖는 개인적 경험의 한계를 넘어 보편적 기억을 만들어낼 수 있는 양식이었다. 이병주의 소설은 학병 서사 안에서 그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였다. 특히 식민지 시대부터 해방 이후 나아가 한국전쟁까지의 역사를 일관된 역사적 맥락으로 꿰려 했다는 점은 『관부연락선』을 다른 소설과 차별화하는 특징이었다. 앞서 살폈듯이 이병주는 허구의 영역인 소설에 사료를 추가하여 역사에 한발 다가갔다. 시간과 인물에서

는 갈등의 한복판에서, 어느 쪽의 편향도 경계하며 교사 일에 충실하려 노력한다. 그러나 좌익으로부터는 반동으로, 우익으로부터는 부역자로 몰린 유태림은 설 자리를 잃고, 어떻게 살 것인가를 고민하다가 행방불명되고 만다.

16) 김윤식 역시 『돌베개』, 『장정』, 『탈출』이 논픽션이라면, 『관부연락선』은 탈출하지 않은 학병의 글쓰기이자 픽션의 글쓰기라는 점을 강조한다. 영웅 심리가 깔린 탈출 학병의 글쓰기가 큰 산맥을 이루었다면, 탈출하지 않은 세대의 글쓰기란 자의식을 상상력으로 보강한 범주라 정의한다. (김윤식, 『일제 말기 한국인 학병세대의 체험적 글쓰기론』, 서울대출판부, 2007, 29면)

『관부연락선』을 확대했다고 할만한 『지리산』[17]의 표지에 '실록 소설'이라는 이름이 붙은 이유도 이 때문이다. 아무리 소설이라고 해도 사실을 끌어들이지 않으면 세대로서의 정당성을 주장할 수 없고, 사실을 기록하면 이미 많은 이들의 수기나 증언을 넘어설 수 없다는 한계를 이병주는 독특한 글쓰기 방식으로 돌파하려 했다.

학병을 다룬 이병주 소설에는 실존 인물을 모델로 삼아 창조한 인물이 많다. 유태림의 모델은 황용주로 알려졌는데, 황용주의 경험은 이병주의 학병 체험과 그리 멀리 있지 않다.[18] 빨치산 관련 서사는 대부분 실존 인물 하준수의 「학병거부자의 수기」와 이태의 『남부군』에 기초해 있다.[19] 이런 실존인물을 포함하여 이병주 소설은 기피자, 탈출자, 잔류 학병을 두루 담아낸다. 그리고 그들의 고민을 긍정함으로써 현실의 선택에서 비롯된 서로의 차이를 의미 없게 만든다. 그들의 삶에 대한 '이해' 혹은 '변명'의 기회를 제공해 주는 것이 그의 학병소설인 셈이다. 유태림, 박태영, 하준수, 이규 등 주요 등장인물들의 삶은 모두 절실함 속에서 나온 선택이었으며 그들의 미래를 결정한 것은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었다고 작가는 말하고자 한다. 그런 면에서 『관부연락선』과 『지리산』은 학병세대에 대한 독특한 해명이라 할 수 있다.[20]

---

17) 『지리산』의 주인공은 박태영과 이규이다. 1943년 말 일제의 징병제 공표로 일본을 떠난 태영은 중학 선배이자 후일 빨치산으로 유명해지는 하준규를 만나 의기투합하여 지리산으로 들어간다. 거기서 작은 공화국이라 할 보광당을 세워 지내던 중 해방을 맞는다. 그들의 활동은 해방 이후 빨치산으로 이어진다. 한편 이규는 지역 유지 하영근의 후원으로 프랑스 유학길에 오른다. 이후 박태영은 공산당 활동에 환멸을 느끼는 등 긴 갈등의 시간을 겪는다. 토벌대가 포위망을 좁혀오자 그는 동료들과 함께 목숨을 끊는다.

18) 황용주는 탈출하지 않았으며 일본군 간부 후보생으로 해방을 맞았다. 와세다 대학 문과생으로 학병에 나간 황용주는 일본군 간부 후보생이 되기 위해 백방으로 노력했고 마침내 해방 전 일본군 소위가 되었다. (김윤식, 『이병주 연구』, 국학자료원, 2015)

19) 남도부(하준수)의 수기 「신판 임거정-학병 거부자의 수기」는 해방 다음 해 『신천지』(1946.4~6)에 연재되었다. 이태의 실화 소설 『남부군』이 출간된 것은 1988년이지만 이병주는 그 전에 이태의 원고를 검토했다고 한다.

20) 『관부연락선』의 史實들을 검토한 권선영은 소설 속 관부연락선의 정보가 실제와 상이하다는

3. 운명과 변명

학병 제도 실행과 학병 경험이 역사적이고 의미 있는 사건이라는 데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 하지만 학병과 관련하여 세대라는 말을 쓰는 것은 다른 문제이다. 전체 5,000명도 되지 않는 인원[21]을 가진 특별한 집단의 특성을 그 세대의 정체성으로 삼을 수 있는지 의문이 들기 때문이다. 포괄하는 범위가 더 넓은 징병 세대나 이중언어 세대 등이 더 적절한 개념으로 보이기도 한다. 그런데도 현재 학병세대라는 말이 널리 쓰이는 이유는 그들이 자기 세대의 텍스트를 효과적으로 생산해왔기 때문이다. 그들은 일제 말과 해방 그리고 한국전쟁을 그럴듯한 서사로 엮어냈으며, 목숨을 건 저항과 새로운 국가 건설이라는 자기 세대의 신화를 만들어냈다.

게다가 학병세대에는 정치계나 언론계 그리고 학계에서 이름 있는 자리를 차지한 이들이 많았다. 대표적인 인물을 보면, 김수환(추기경), 이일규(대법원장), 강영훈(국무총리), 김준엽(고려대총장), 조영식(경희대총장), 윤천주(서울대총장), 조좌호(성균관대총장), 장도영(육군참모총장), 이철승, 장준하, 신상초, 박병배, 최세경, 정우식(정치인), 구태회, 임정수, 이동찬, 김종대(경제인), 김성한, 장용학, 한운사(작가) 등이 있다. 그 밖에 장군과 교수를 지낸 이들도 다수였다.[22]

문학으로 자기 경험을 진지하게 탐구한 작가로는 이병주가 단연 독보적이었다. 그의 대표작 『관부연락선』과 『지리산』에서 학병세대의 경험은 '운명'이라는 말로 귀결된다. 작가는 하준규, 박태영, 이규 그리고 유태림이라는 학병세대 주인공을 통해 개인들의 운명과 그들이 빠져든 역사라

점을 밝혔다. (권선영, 「이병주 『관부연락선』에 나타난 시모노세키와 도쿄」, 『비평문학』63, 한국비평문학회, 2017.3, 14면) 물론 소설에서 정확한 수치가 절대적으로 중요한 것은 아니다. 소설의 핵심은 자료의 정확성이 아니라 그것이 의미하는 바이다.

21) 각주 6번 참조.

22) 안경환, 『황용주-그와 박정희의 시대』, 까치, 2013, 165면.

는 함정을 보여준다. 유태림은 해방기 이데올로기 대립의 희생자로 그려진다. 영웅 대접을 받아가며 본격적으로 좌익 활동을 했던 하준규 역시 마찬가지이다. 학병 기피자 박태영의 운명 역시 이념이라는 함정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흥미로운 것은 병역 기피자 박태영과 하준규의 운명이 학병으로 제대한 유태림의 운명과 같은 곳에서 만난다는 점이다. 식민지 말기 어떤 선택을 했든 이들은 모두 이데올로기라는 파도에 희생되고 마는 셈이다. 주지하다시피 앞서 거론한 인물 중 작가 이병주와 가장 닮은 이는 유태림이다. 인정 투쟁의 관점에서 볼 때 이는 과거의 차이를 현재 관점에서 약화하려는 시도로 볼 수 있다. 불행한 시대를 살았던 학병세대의 선택과 불행은 작은 차이들에도 불구하고 궁극적으로 운명에 따라 결정되었다는 것이 이병주 소설의 결론이다.

> 어떤 사람은 생자와 사자와의 차이를 폭탄이 떨어진 곳에 있었다는 것과 그곳을 살큼 피했다는 것과의 차밖엔 안 된다고 했는데 나는 그보다도 더욱 사소한 차라는 것을 발견했다. 일본 참모본부에 있는 어떤 장교의 연필 끝의 장난일 뿐이다. 그 연필 끝이 어떤 사람들을 태평양으로 보내고 나는 중국 소주蘇州로 보냈다. 그 연필 끝의 역사를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23]

제대 학병이 상해에서 겪은 경험을 다루고 있는 단편 「변명」의 한 부분이다. 위에서 가장 강조하고 있는 단어는 '사소한 차'이다. 어떤 학병이 태평양으로 간 것과 다른 학병이 중국 소주로 간 것이 이 사소한 차 때문이라고 말한다. 그렇다면 탈출했거나 기피했거나 잔류한 학병들 사이의 차이도 사소하다고 말할 수 있다. 『관부연락선』이나 『지리산』에서 이 차이를 다른 말로 바꾸면 운명이 된다.

23) 이병주, 「변명」, 『마술사』, 한길사, 2006, 88면.

유태림은 자신이 학병으로 지원한 것에 대해 “병정은 그저 병정이지 어느 나라를 위해, 어느 주의를 위한 병정이란 것은 없다.”[24]고 말한다. 과거 판단에 관한 자기 나름의 논리로 보인다. 실제로 당시 유태림과 같은 처지에서 다른 선택이 불가능했을 수도 있고, 당시에 이런 생각이 젊은이들에게 유행이었을 수도 있다. 그러나 해방도 한참 지난 시점에, 소설이라는 양식을 빌리어 이런 문장을 쓴 데 대해서는 다른 의미를 묻지 않을 수 없다. 넓게 보면 당시 병정은 일본군으로 해방을 맞은 학병과 탈출한 학병만 있었던 것이 아니다. 만주국 사관학교 출신의 관동군과 광복군과 중국군도 있었다. 학병에 지원할지 말지의 선택에 놓인 젊은이의 심정은 충분히 이해해야 하겠지만, 1960~1970년대 소설에 실린 ‘병정은 그저 병정’이라는 진술은 작가가 여전히 1944~5년에 묶여 있음을 보여줄 뿐이다. 당시 자신들의 처지는 특별했고 현재도 충분히 이해되어야 한다는 세대론적 주장이라 할 수 있다.(냉정히 말해 옹색한 변명에 가깝다.)

그렇다 하더라도 유태림이라는 캐릭터는 『관부연락선』을 의미 있는 소설로 만든다. 그는 학병 경험자의 복잡한 대일인식을 보여주는 흔치 않은 인물이기 때문이다. 민족 투사 혹은 민족을 위한 희생자로 자신을 내세운 서사들과 비교할 때 『관부연락선』은 다수의 학병 체험과 그들의 내면을 비교적 객관적으로 다루고 있는 작품이다. 그런 의미에서 『관부연락선』은 ‘자전적인 작품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실은 자전적 색채가 가장 적은 작품’이며, ‘개인을 넘어 학병세대의 정신적 풍경을 묘사하는 데까지 도달’했다는 평가를 받는다.[25] 비단 『관부연락선』뿐 아니라 학병 경험을 다룬 이병주의 서사는 대개 학병이 개인에 미친 내면의 파장을 기술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

나는 아득한 옛날 프랑스의 파리 어느 거리에서 만난 절름발이 거지를

24) 이병주, 『관부연락선』2, 한길사, 2006, 364-365면.
25) 정미진, 「이병주의 대일인식과 한일협정의 기록」, 『국제어문학』 44호, 2019, 251면.

생각한다. 나는 그에게 한 푼의 돈을 주고 다리를 어디서 다쳤느냐고 물었다. 그는 외인부대에 갔었다고 했다. 외인부대엔 뭣 때문에 갔느냐고 되물었더니 그는 품위와 위엄을 갖추고 답했다.

'운명'이라고.

운명…… 그 이름 아래서만이 사람은 죽을 수 있는 것이다.[26]

『관부연락선』의 결말 부분에서 유태림이 남긴 글이다. 그는 이념을 피하려 노력했지만, 의지와 상관없이 산에 들어가게 되었고 곧 죽음이 닥치리라 예상한다. 이때 먼 프랑스의 절름발이 거지를 생각한다. 다친 다리에 대해 거지가 운명이라고 말했던 것처럼 유태림도 자신에게 닥칠 죽음을 운명이라 말하고 싶어 한다. 그리고 그 이름 아래서만 죽을 수 있다는 말로 운명을 수용한다. 운명을 수용한 자기 죽음에서 품위와 위엄이 느껴지기를 바라기까지 한다.

어느 세대나 자기 세대를 변호하고 변명하려 한다. 학병세대 유태림의 변명이 이른 곳은 운명이었다. 그런데 사실 운명이란 변명할 필요가 없거나 변명할 수 없는 것이다. 그저 받아들여야 하는 것이 운명이다. 그래서 학병들의 변명에는 극복할 수 없는 피해의식과 원한 감정이 있었다. 그들은 하고 싶은 말이 너무나 많았다. 『학병 사기』에만 해도 4천여 면에 해당하는 기록을 남겼고, 각 권마다 서문, 발간사, 간행사, 출간사를 줄줄이 달아 두었다.[27] 수기를 통해 피해의식과 원한 감정을 자부심으로 바꾸려는 욕망을 드러냈다 할 수 있다. 이런 의미에서 보면 이병주에게 소설 『관부연락선』은 수기와 별반 다르지 않은 글이었다. 운명이라는 이름으로 자기를 긍정하도록 쓰인 글이 『관부연락선』이었던 셈이다.

운명에 대해 말하면서 『관부연락선』은 학병세대의 당대 의식이 아니라 그들에 대한 현재의 평가를 담는다. 이는 말하자면 과거 경험과 기억을

26) 이병주, 『관부연락선』2, 366면.

27) 김건우, 「운명과 원한」, 『서강인문논총』52, 2018.8, 119-120면.

현재에 소환하는 작업인 셈이다. 그런데 문제는 기억이란 인간이 가진 것 중에서 가장 신뢰할 수 없는 종류에 속한다는 점이다. 기억과 망각은 현재에 지배받는다. 어떤 기억들이 현시점에서 접근 가능한지, 그리고 어떤 기억들이 불러올 수 없는 것인지를 결정하는 것은 현재의 감정과 동기이다.[28] 소설에만 그런 혐의를 지울 수는 없지만, 발생한 일과 기록된 일은 같을 수가 없다. 과거는 원래 존재했던 것이 아니고 글쓰기 과정에서 발생한다. 그것은 당대인들에 의해 먼저 경험되지 않고 현재의 기억 과정에서 새롭게 경험된다.[29] 이런 기억 과정은 정체성 형성, 자기 긍정, 인정투쟁 등에 큰 영향을 미친다. 이병주 소설은 수기나 기록과는 다른 방식으로 이런 세대(그리고 개인)의 정체성 수립에 이바지하였다.

4. 우애와 이념

앞서 많은 학병이 해방기에 좌익으로 분류되었다고 했는데 이병주는 그들과 다른 길을 걸었던 작가이다. 작가의 분신으로 여겨지곤 하는 소설 속 인물을 통해 그의 사상을 추론해 볼 수 있다. 우선 『관부연락선』의 유태림은 중립주의 혹은 회색 주의자로 평가된다. 소설은 유태림의 특유한 중립주의가 형성되는 원천을 일제 말기의 체험까지 소급해서 보여준다.[30] 회색 주의자인 유태림은 민족주의적 시각에서 학병이라는 집단적 상징물을 구성하지 않는다. '국가주의적 주체화'의 호명을 거부하며 망명인 또는 이방인으로서의 역사 인식을 보여준다.[31] 그는 학병 체험에 대해 위악적

28) 알라이다 아스만, 『기억의 공간』, 변학수 · 채연숙 역, 그린비, 2011, 84면.

29) 프레데릭 코니, 「대사건을 다시 생각하기」, 『국가와 기억』, 최호근 외 역,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2006, 54면.

30) 이광욱, 「중립 불가능의 시대와 회색의 좌표」, 『민족문화연구』84, 2019, 642면.

31) 이다온, 「학병소설에 나타난 디아스포라 정체성 연구」, 『민족문학사연구』65, 2017.12, 462-463면.

인 자기 혐오를 드러내지만, 그에 못지않게 이념 대립과 '어리석고 미개한' 현실 정치에 대해서도 환멸을 느낀다.

그런데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이 소설이 철저하게 1960년대 후반의 관점에서 쓰였다는 사실이다. 『관부연락선』에는 세 개의 시간 층이 존재한다. 첫 번째는 유태림이 쓴 수기인 「관부연락선」의 배경인 식민지 말기, 두 번째는 서술자 '나'(교사 李)가 살고있는 해방기, 세 번째는 유태림을 찾는 일본인 친구 E와 李[32]가 편지를 주고받는 1960년대이다. E가 소지하고 있는 수기 「관부연락선」은 유태림이 쓴 글이다. 그리고 유태림의 수기 이후의 이야기를 서술하는 인물은 유태림의 친구이자 동료인 李이다. 李는 유태림의 추종자라 할 만큼 그의 생각을 따르는 인물이다. 유태림의 수기를 보관하고 있는 E 역시 유태림과 비슷한 생각을 가졌던 인물이다. 굳이 유태림의 연대기 형식으로 소설을 쓰지 않고 李를 서술자로 내세웠기에 이 소설은 李가 E의 편지를 받은 1960년대의 관점에서 유태림을 그릴 수 있었다. 즉 이 소설에서 유태림에 대한 기억과 평가는 1960년대의 시점에서 이루어진다. 그리고 유태림(그리고 실제 모델인 황용주)의 과거는 작가 이병주의 과거이기도 했다.

『관부연락선』에서는 회색과 관련하여 중립이라는 단어도 사용된다. 그런데 그것이 보여주는 것은 양쪽 가치의 중간이 아니라 무엇을 중립으로 보느냐는 사용자의 의지이다. 다시 말하면 중립이라는 이름의 다른 이념을 만들어내는 것에 가깝다. 이념에 있어서 기계적 중립이란 사실 허망한 명명일 뿐이다. 만약 유태림을 중립에 놓을 이유가 있었다면 그것은 『관부연락선』이 창작될 당시인 1960년대 후반이 만들어 낸 어떤 이유 때문이었을 것이다. 환멸과 허망 역시 그렇다. 환멸과 허망 아닌 무언가가 존재해야 그것이 설득력을 얻을 텐데 유태림에게는 그 지향점이 분명하지 않다. 그에게는 학병 이전 도쿄의 시간이 그나마 허망하지 않았던 것으로

32) 우연이겠지만 편지를 주고받는 유태림의 두 친구가 모두 [i]라는 점도 재미있다. 李는 이병주에서 왔다고 보면 되지만 일본인이 E인 이유는 짐작하기 어렵다.

보인다. 『지리산』에서는 보광당이라는 집단이 이 환멸과 허망에서 자유로운데 이 집단 역시 해방 이전 도쿄의 다른 이름이라는 인상을 강하게 준다.

『관부연락선』이 유일한 학병 서사였다면 소설의 발표 시점을 굳이 문제 삼지 않아도 될지 모른다. 하지만 다른 서사들(특히 탈출 학병들의 서사)이 이미 간행된 후에 시차를 두고 이 소설이 나왔다는 점은 주목해야 한다. 또, 발표 시기는 『관부연락선』에서 학병이 아니라 일본을 문제 삼아야 하는 이유이기도 하다.[33] 소설의 현재 시간에 초점을 맞추면 이 소설은 유태림을 매개로 한국인 李와 일본인 E가 서로의 오해를 불식하고 우애를 회복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식민지 과거에 대한 '기억의 서사'가 냉전체제 나아가 세계 체제 아래 '우애의 정치학' 안으로 포섭되는 동력학을 보여주는 것이다.[34] 해방 이후 한국이 세계 체제 안에 들어가는 과정에서 일본과의 관계 복원은 필수적인 것으로 여겨졌고, 이는 새로운 식민-피식민 체제로의 편입이었다. 한일회담이 정치 경제의 투쟁 장이었다면 그의 소설은 문학 장에서 담론의 공간을 형성한 것이다.[35]

에필로그처럼 『관부연락선』의 말미에는 유태림과 한국 여인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 유태림과 일본 여인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이 모두 건강하게 자라고 있다는 내용이 실려 있다. 한국에는 S대학 불문과에 다니는 아들이 있고, 가즈에라고 하는 여자가 낳은 아들은 도쿄에서 대학병원 의사로

33) 『관부연락선』은 비교적 이른 시기에 일본어로 번역되었다. 2017년 일본의 후지와라 서점(藤原書店)을 통해 『관부연락선』의 일본어판 단행본이 출간되었는데(『関釜連絡船』, 橋本智保訳, 2017), "드디어국역遂に邦訳"되었다는 이 책의 선전 문구와는 달리 이미 1974년 1월 1일부터 1975년 7월 5일에 걸쳐 재일한국인들이 발행하는 신문 〈통일일보(統一日報)〉에 소설의 내용 전체가 일본어로 연재된 바가 있다. 『관부연락선』은 『월간중앙』의 연재가 종료되고 5년 만에, 그리고 최초의 단행본이 출간된 후 2년 만에, 현해탄을 건너게 된 것이다. (정창훈, 「한일관계의 65년 체제와 한국문학」, 동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20.146-147면)

34) 정창훈, 앞의 논문, 28면.

35) 김성환, 「식민지를 가로지르는 1960년대 글쓰기의 한 양상」, 『한국현대문학연구』46, 2015, 305면.

근무 중이다. 소설은 일본에 있는 아들이 예전 유태림과 너무나 닮은 데는 놀랄 정도라는 E의 말을 굳이 덧붙인다. 유태림의 두 아들이 의미하는 바가 두 나라의 관계를 상상하는 이병주의 상상력과 무관하다고 볼 수 없다.

『관부연락선』에서는 과거에 대한 평가를 위해 작가가 직접 개입하기도 한다.

> 여기에서 황급히 필자의 의견을 말해본다면 여순반란사건은 천인이 공노할 민족의 비극이긴 하지만, 한편 생각하면 대한민국이란 어린 정부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꼭 필요했던 시련이기도 하다.
>
> 만일 그런 반란 사건이 없었고 그러나 반란분자들이 정체를 감춘 채 국군 속에 끼여 그 세위를 확장해가고 있었다고 하자. 그런데다 6·25동란이 덮쳤으면 어떻게 되었을까. 그들은 침략군에 호응해서 일제히 반란을 선동하고 나섰음에 틀림없을 것 아닌가.[36]

소설에서 작가가 자기 목소리를 직접 드러내는 일이 없지는 않지만, 위에서처럼 역사적 사건에 대한 개인 의견을 강하게 내세우는 일은 흔치 않다. 애초에 이병주는 허구적 인물이 아니라 실존 인물을 소설에 그대로 노출하는 것을 꺼리지 않는다. 자신과 유사한 경험을 한 인물 또는 동시대의 인물을 끌어들여 자신의 경험과 섞기도 한다. 그리고 소설을 통해 역사를 재구성한다. 소설의 신뢰와 집중력을 해칠만한 이런 개입을 서슴지 않는 태도는 흔히 생각하는 소설=허구라는 문법에서 자유로운 그의 소설 세계를 보여주는 동시에 소설=역사를 지향하는 그의 욕망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같은 학병세대를 다룬 소설이지만 『지리산』에 이르면 자전적 요소는 감소한다. 남부군 부사령관 남도부(하준수)의 수기와 이태의 수기를 참조

36) 이병주, 『관부연락선』2권, 248면.

한 부분이 많다. 『지리산』의 주요 인물과 유태림은 같은 세대이지만 다른 선택을 한다. 특히 하준규는 학병세대의 이념형이라 할만한 인물이다. 그는 식민지 시대 말기 산으로 들어가 보광당이라는 자치 공동체를 꾸미고 해방 이후에도 지리산을 중심으로 빨치산 활동을 한다. 다른 주인공 박태영은 이념의 허무를 보여주는 반공주의자이다. 보광당의 건강한 이념이 빨치산의 사회주의 이념에 의해 어떻게 무너지는지 보여주는 인물이다. 이념의 세계를 피해 유학을 떠나는 이규는 식민지 교양 주의를 해방 이후까지 끌고 와 실현하는 인물이다.

이 소설에서 박태영의 삶이 환멸과 죽음으로 끝나고 하준규의 삶 역시 비극으로 끝난다는 점은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유태림의 관점에서 보면 이들 역시 '운명'을 받아들인 사람들이다. 그런데 유태림, 박태영, 하준규의 비극적 운명에는 '학병'은 빠지고 이데올로기만 남는다. 학병이라는 운명이 이들을 불행에 빠뜨린 것이 아니라 이념이 그들을 비극으로 몰아간 것이다. 반면 주변의 도움으로 이전의 삶을 이어가는 이규는 비극을 겪지 않는 유일한 인물이다. 그렇다면 이런 질문이 자연스럽게 따라 나온다. 유태림, 하준규, 박태영에게 가장 행복했던 시절은 언제였나 라고. 말할 것도 없이 식민지 말기이다. 이렇게 보면 『지리산』은 65년 체제를 통해 식민지의 부정적 기억을 지우는 작업이 반공주의로 나아가는 과정을 보여주는 소설이다. 일본과의 우애를 회복하는 과업의 연장에 좌익과의 거리 확인이 놓이는 것이다.

개인의 원체험을 통해 주조해내는 소설의 현실은 미학적이며 특수한 현실이다. 소설은 공적 역사를 욕망하지 않는 것으로 역사의 진실과 닿으려 하는 양식이다. 최근에는 역사조차 공적 역사에 대한 반성으로 과거의 미학적인 재현에 관심을 기울인다. 그러나 이병주는 개인적 경험을 통해 공적 역사 영역에 참여하려 하였다. 이를 위해 작가는 역사의 행간에 묻혀 있는 인물들을 서사 중심에 배치하고 그들을 공적 역사로 간주하기도 한다.[37] 그들의 역사를 자신의 역사로 전유하는 셈이다.

자전적이고 세대론적이라는 점에서 그의 소설 쓰기는 인정 투쟁의 성격을 띠고 있다. 인정 투쟁은 정당성을 세우는 작업이다. 이병주에게는 그것이 역사가 아니라 소설이었을 뿐이다. 그가 과거를 기록하겠다는 욕심으로 수기나 증언이 아닌 소설을 선택한 이유는 소설이 사실과의 거리두기가 용이한 양식이기 때문이다. 학병 모두를 같은 층에 나란히 세우는 일이 그에게는 필요했다. 그의 소설에서는 탈출자의 영웅적 행동이 특별히 칭찬받을 이유가 없다. 기피자의 고난도 잔류 학병의 고뇌보다 우월할 것이 없다. 현재의 관점에서 새롭게 해석되는 것이 역사라면 그의 소설은 현재의 관점에서 다시 쓴 학병세대 역사인 셈이다.

현재 관점에서 역사를 새로 쓰는 작업은 그의 소설이 일관되게 지향한 바이기도 하다. 65 체제와 『관부연락선』, 반공주의와 『지리산』, 이승만 정권의 몰락과 『산하』, 박정희 정권의 몰락과 『그해 5월』이 그런 짝을 이룬다. 이 소설들은 모두 역사의 격동 끝에 다시 쓴 당대사의 성격을 띠며 그의 분신 같은 중심인물을 내세운다.[38]

> 역사는 언제나 다시 쓰여야 한다는 말이 있듯이 회상도 새롭게 검토되어야만 진실에 가까워질 수 있는 것인지 모른다. 아무려나 나는 그날 밤의 사건으로 인해 아슴프레하게나마 내 인생에 대한 감을 잡을 수가 있었고, 그 회상은 나의 의식의 성장에 비례해서 차츰 정밀화되었고, 그 정밀화된 회상을 핵으로 하여 후에 닥치게 된 일들을 연결해서 비로소 자기의식에 이를 수 있었다. 말하자면 나의 인생은 그날 밤의 사건과 그 사건에 따른 회상으로 인하여 결정된 것이나 다름이 없다.[39]

37) 이평전, 「이병주 소설에 나타난 '인정 투쟁'의 논리와 전개 양상 연구」, 『한국문학이론과 비평』78집, 2018.3, 44면.

38) 앞의 소설에서처럼 이 소설들에도 실존 인물, 실제 사건이 자주 등장한다. 『남로당』은 남로당의 핵심 인물이면서 살아 있는 증인인 박갑도의 행적을 좇는 소설이다. 소설 『산하』 또한 여순 사건, 반민특위 및 국가보안법 문제, 국회 프락치 사건, 백민태 사건, 김구 암살 사건, 5.30 선거, 부산정치파동, 한국전쟁, 사사오입 개헌 파동, 조봉암과 진보당 사건 등 역사적 사실을 바탕으로 당대를 살아가고 있는 인물들을 그린다.

비록 미완이지만 이병주의 마지막 작품인 『별이 차가운 밤이면』의 주인공 박달세도 학병세대이다. 그는 학병으로 가는 대신 일본군의 첩자로 활동한다. 박달세가 자기 행위를 합리화하는 근거는 그가 노비와 같은 상것 출신이라는 점이다. 박달세는 사회의 혜택을 아무것도 누리지 못했기에 그런 제도를 유지해온 조선에 빚진 것이 없다고 생각한다. 일본 경찰의 하수인으로 살아가는 자신의 삶을 그는 운명이라 말하며 긍정한다.[40] 자기반성과 자기변명의 충돌을 보여준 『관부연락선』, 『지리산』과 이 소설이 구분되는 지점이다. 위 예문에서 박달세는 역사는 다시 쓰여야 하고 회상은 새롭게 검토되어야 한다고, 정밀화된 회상을 핵으로 다른 일들을 연결할 때 비로소 자기의식에 이를 수 있다고 말한다. 말할 것도 없이 현재 자기 행위를 합리화하기 위해 끌어들인 논리이다. 이병주 역시 이런 관점에서 자신의 경험과 그와 관련된 우리 역사를 다시 쓰기 위해 노력한 작가였다.

5. 수재의식과 교양 주의

학병세대를 다룬 이병주 소설을 관류하고 있는 이념은 교양 주의였다. 그는 좌우 이념이 아닌 교양 주의로 학병의 정체성을 구성하려 하였다. 당시 교양 주의는, 비록 모순과 기만의 가능성이 농후하지만, 민족주의와 거리를 두고 세계주의(cosmopolitanism)에 접근하려는 경향성을 띠고 있다. 특히 유태림의 세계주의적 감수성은 조선과 일본의 경계에서 끊임없이 미끄러질 수밖에 없었던 그의 존재론적 고민의 피난처였다. 좌우의 대립이 심하던 해방기에 그가 에뜨랑제로 남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도 이 때

39) 이병주, 『별이 차가운 밤이면』, 문학의 숲, 2009, 33면.

40) 김윤식은 『관부연락선』, 『지리산』, 『별이 차가운 밤이면』을 학병 3부작으로 보고 "운명 타령"이 세 작품의 공통점이라 말한다. (김윤식, 「작품 해설」, 『별이 차가운 밤이면』, 631면)

문이다.

해방 전후는 물론 그 이후에도 학병세대는 '조선과 일본을 통틀어 가장 자유로운 세대'[41]였다. 대부분 부유한 집의 자재였던 그들은 일본인이 아니어서 징병 대상도 아니었다. 세계정세는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었지만, 그들은 그로부터 한발 물러나 교양 주의라는 울타리 안에 머물 수 있었다. 학병세대에게서 나타나는 병정이나 군대에 대한 경멸의식은 이런 교양 주의의 결과였다고 할 수 있다. 그것은 단순히 군대나 전쟁에 대한 혐오감의 표출이라기보다는 현실 자체를 부정하고자 하는 의지의 표현이었다.[42] 그래서 유태림이나 박태영, 이규와 같은 인물에게는 해방 후의 혼란이나 심지어 빨치산조차도 관념과 논쟁의 대상이었지 피부로 다가오는 현실이 아니었다.

유태림과 『지리산』의 학병세대 인물들은 서양 지식과 교양을 이상으로 삼는 일본식 교육을 받으며 성장하였다. 이후에도 그들의 세계관은 그 시기에 고정되어 있었다. 그들이 세계를 보는 창은 책이었다. 『지리산』에 언급되는 책의 목록을 살펴보면 그들의 지적 취미가 어디를 향하고 있었는지 짐작할 수 있다. 예를 들면 도스토예프스키의 『죄와 벌』, 테니슨의 『이녹 아든』, 마르크스의 『자본론』, 『경제학 비판』, 베른슈타인의 『수정 사회주의』, 뚜르게네프의 『처녀지』, 루소의 『민약론』, 힐퍼링의 『금융자본론』, 지멜의 『생의 철학』, 유소기의 『당원의 수양』, 모택동의 『신민주주의』, 레닌의 『제국주의론』, 트로츠키의 『러시아혁명사』, 지드의 『소비에트 기행』, 아서 캐이틀러의 『백주의 암흑』, 카의 『러시아 혁명사』, 오스트로프스키의 『강철은 어떻게 단련되었는가』 등이다. 주로 유럽과 미국인 저자들의 책이며 사회주의 관련 서적과 소설도 다수를 차지한다. 한국의 소설가와 사상가는 거의 등장하지 않는다. 일본 서적도 마찬가지이다. 학병세대가 서양의 철학, 문학, 역사 등에 경도되어 있었음을 쉽게 알 수 있다.

41) 조영일, 앞의 논문, 145면.
42) 조영일, 위의 논문, 144-145면.

교양 주의는 학업 능력에 대한 물신화를 낳기도 했다. 유태림과 박태영 그리고 이규는 일본 유학생 중에서도 천재에 속했다. 『별이 차가운 밤이면』의 박달세 역시 마찬가지였다. 소설 속 그들 세대에게 중요한 것은 식민과 피식민의 구분이 아니라 천재와 둔재의 구분이었다. 그들은 일제 말기 조선의 최고 청년 지식인들이었다. 이에 더불어 엄연한 '대일본제국'의 지적 수준을 고스란히 투영하고 있던 집단이었다.[43] 구체적인 사례를 보여주지는 못하지만, 작가는 유태림, 박태영, 이규, 박달세가 모두 조선은 물론 일본 안에서도 경쟁자가 없는 천재였음을 강조한다. 그리고 그 '공부' 잘하는 능력으로 보통 사람들 이상의 대우를 받거나 보통 사람이 얻기 어려운 행운을 얻는다. 때로는 '공부' 잘하는 능력이 새로운 계급을 만든다는 인상을 주기까지 한다.

> 유태림은 우리들과는 소원하게 됨에 따라 E, H 등 일본 사람과의 교의交誼는 더욱 두터워진 것 같았다. 우리는 '한국 사람이 그럴 수가 있나' 하는 불평마저 하지 않기로 했다. 그건 그런 말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열등생의 수재들에게 대한 질시로 해석될 우려가 있었기 때문이다.[44]

유태림이 일본 학생들과 어울리는 것에 대한 조선 학생, 즉 서술자 李의 반응이다. 수재에 속하지 못하는 서술자의 열등감, 자존심 때문에 수재들에 대한 질시를 숨기려는 마음이 잘 드러난다. 위 예문대로라면 열등생과 수재의 구분은 민족의 구분보다 앞선다. 이때 구분의 기준은 앞서 살핀 서양적 교양의 습득 수준이다. 유태림을 비롯한 이병주 소설의 천재들은 표면적으로는 이념이나 권력의 반대편에 있는 듯하지만, 결국에는 당시 국가권력이 지향하던 영웅주의의 생리를 고스란히 답습한다. 그들

43) 안경환, 앞의 책, 199면.
44) 이병주, 『관부연락선』1권, 한길사, 2006, 23면.

은 어리석은 이들과 섞여 평범한 한 사람의 시민으로 살아가지 못한다. 그의 소설에서 천재들은 서구지향과 선망을 보여주면서 한국의 전통, 민족성, 대중과 기층민에 대해서는 무시하거나 불신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한다.[45] 그들은 주변을 받아들이고 개선하기보다는 현실의 부족한 점, 타인의 어리석은 점을 지적하기에 바쁘다.

교양 주의의 세례는 이병주가 한일관계의 복원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데도 영향을 미쳤다. 앞서 우애라는 말로 표현한 것처럼 관계 복원은 식민-피식민 기억을 넘어서는 과거 경험과 기억의 복원으로 이어졌다. 식민지 시기를 다룬 이병주의 소설이 민족주의에 경도되지 않는 균형 감각을 보이는 것은 사실이지만, 어쩌면 우리가 균형 감각이라 평가하는 것이 단지 좋았던 식민 이전 기억을 지우고 싶지 않은 작가 욕망의 발현일 수도 있다. 교양 주의 교육을 받은 피식민지 엘리트에게 민족, 국가, 인종의 관점은 그리 중요한 것이 아니었다. 수재들에게는 인류 최고의 지적 유산을 향유할 수 있는 기회, 그런 기회를 보장하는 환경만이 중요했다.

『관부연락선』의 유태림이나 『지리산』의 이규가 유학하던 시대는 미키 기요시(三木淸)와 고바야시 히데오(小林秀雄)가 젊은이들에게 큰 영향을 미치던 시기였다. 특히 유태림은 고바야시에 경도되어 있었다. 그는 대표적인 전향론자였는데, 당시 전향론의 최대 모티프는 '혁명 운동의 현실적 비판'이었다. 이러한 사상적 동향이 일본에서 근대적 고등교육을 받고 있던 식민지 조선의 지식 청년에게 지대한 영향을 끼쳤으리라는 점은 쉽게 짐작할 수 있다. 그 지식 청년의 범주에 유태림, 이규 그리고 이병주도 속해있었다.[46]

따라서 『관부연락선』과 『지리산』의 반공주의도 그 연원이 꽤 깊다고 할 수 있다. 이병주는 남한 자본주의를 적극적으로 긍정하지 않으면서도

45) 송주현, 「국가비상사태 전후의 문화정치와 지식 전유의 한 양상」, 『이화어문론집』40, 2016, 149면.

46) 김외곤, 「이병주 문학과 학병세대의 의식 구조」, 『지역문학연구』12호, 2005, 16면.

반공주의를 내세웠다. 사실 『관부연락선』이나 『지리산』의 반공주의는 막연한 이념에 기초한 것이지 현실 정치나 구체적인 계급적 관점에 기초한 것은 아니다. 『지리산』을 예로 들자면 빨치산, 공산주의 비판은 '보광당'으로 대표되는 긍정적 공동체에 이르지 못한 수준, 교양이 부족한 이념에 대한 비판이라고 할 수 있다.[47] 이는 『남로당』, 『산하』, 『그해 5월』을 통한 남한 정부 비판에서도 드러나는 공통점이다.

6. 소설과 역사

이병주는 역사를 소재로 삼아 소설을 쓴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소설을 통해 역사를 쓰려 한 작가이다. 현재 시점에서 과거를 새롭게 써나가고 그를 통해 자신의 정체성을 확인하는 작업이 그의 소설 쓰기였다. 소주에서 일본 육군으로 해방을 맞는 그는 다른 학병세대들처럼 수기나 증언을 쓸 수 없었다. 영웅적인 행위도 목숨을 내놓고 감행한 모험도 그의 삶에는 없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소설을 통해서는 내면에 담긴 자기 이야기를 충분히 할 수 있었다. 타인의 경험을 자기 경험과 결합하여 캐릭터를 만들어내고 그 캐릭터를 통해 역사 속에서 자기 행위를 정당화하였다. 이병주의 소설 그것도 역사를 기록한 소설에서 영웅적 행위는 고작 이후에 닥칠 환멸을 더욱 비극적으로 만들어줄 뿐이었다.

이병주의 글쓰기는 인정 투쟁이자 자기 긍정의 시도였다.[48] 학병 체험

47) 이평전은 이 흠결 없이 바람직한 집단에 대한 판타지를 비판적으로 고찰한 바 있다. 이병주의 국가 파시즘 의식이 이상적 집단을 꿈꾸는 이들의 동경과 관련된다는 것이 주장의 핵심이다. (이평전, 「1970년대 이병주의 회색인 사상과 유사 파시즘으로의 이행 연구」, 『한국문학과 예술』, 2017.3, 25면)

48) 자기 세대의 경험을 가장 앞자리에서 전유할 수 없었던 이병주는 이후 소설에서 중요하게 사용될 또 하나의 경험을 갖게 된다. 필화 사건이 그것인데, 필화로 고통받은 인물은 학병 경험 다음으로 그의 소설에서 중요하다. 이런 면에서 그의 첫 소설이 「소설 · 알렉산드리아」라

이 그의 정체성에 큰 영향을 미쳤듯이 그 시절 체득한 교양 주의 정신도 그와 그의 소설에 큰 영향을 주었다. 그의 소설에서 노골적으로 드러나는 반공주의도 실은 이 식민지 교양 주의와 멀리 떨어져 있지 않다. 그의 교양은 독서를 통해 얻은 서양의 교양이었다. 그의 소설에서는 세계주의를 자주 발견할 수 있는데, 그의 세계주의는 민족주의를 극복한 것이라기보다는 경험 없이 교양으로 습득해버린 일종의 선험적 감각이었다.

이병주의 소설사적 의미는 학병세대의 대표 작가라는 말로 정리될 수 있다. 그는 자기 세대의 경험을 탐구하여 다른 세대의 문학과 구분되는 의미 있는 소설을 다수 창작하였다. 그의 소설에는 작가의 자전적 경험뿐 아니라 유사한 조건에서 다른 길을 택했던 인물들의 다양한 삶이 그려진다. 그가 이런 작업을 지속할 수 있었던 데는 현대사의 굴곡진 전개도 큰 역할을 했다. 시대의 격동은 그가 기억을 다시 소환할 수 있도록 자극했다. 궁극적으로 그가 지향한 이념과 욕망이 무엇인지를 떠나 이병주의 소설 쓰기는 문학사의 공백을 채워주는 매우 의미 있는 작업이었다.

는 사실은 우연이 아니었다. 학병 이야기 전에 필화가 놓이게 됨으로써 그의 글쓰기는 비로소 진실성을 주장할 수 있게 된다. 영웅적인 행위와 모험은 탈출과 기피에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었다. 목숨을 걸고 자기를 주장하는 '저항'이라는 방법도 있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논의는 다음으로 미룬다.

| 참고문헌 |

1. 기본자료

이병주, 『관부연락선』 1~2, 한길사, 2006.

이병주, 「변명」, 『마술사』, 한길사, 2006.

이병주, 『별이 차가운 밤이면』, 문학의 숲, 2009.

이병주, 『지리산』 1~7, 한길사, 2006.

2. 단행본

김윤식, 『이병주 연구』, 국학자료원, 2015.

김윤식, 『일제 말기 한국인 학병세대의 체험적 글쓰기론』, 서울대출판부, 2007.

김윤식, 『한일 학병세대의 빛과 어둠』, 소명출판, 2012.

안경환, 『황용주-그와 박정희의 시대』, 까치, 2013.

알라이다 아스만, 『기억의 공간』, 변학수 · 채연숙 역, 그린비, 2011.

프레데릭 코니, 『국가와 기억』, 최호근 외 역,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2006.

3. 논문

권선영, 「이병주 『관부연락선』에 나타난 시모노세키와 도쿄」, 『비평문학』63, 한국비평문학회, 2017.3, 7-34면.

김건우, 「운명과 원한」, 『서강인문논총』52, 2018.8, 105-135면.

김성환, 「식민지를 가로지르는 1960년대 글쓰기의 한 양상」, 『한국현대문학연구』46, 2015, 301-344면.

김외곤, 「이병주 문학과 학병세대의 의식 구조」, 『지역문학연구』12호, 2005, 9-33면.

노현주, 「'연안'으로 간 학병들:학병세대와 코뮤니즘」, 『열린정신인문학연구』, 원광대학교인문학연구소, 2016.8, 217-248면.

손혜숙, 「학병의 기억과 서사」, 『우리문학연구』66, 우리문학회, 2020.4, 271-306면.

송주현, 「국가비상사태 전후의 문화정치와 지식 전유의 한 양상」, 『이화어문론집』40, 2016, 135-158면.

이광욱, 「중립 불가능의 시대와 회색의 좌표」, 『민족문화연구』84, 2019.8, 639-679면.

이다온, 「학병소설에 나타난 디아스포라 정체성 연구」, 『민족문학사연구』65, 2017.12, 443-469면.

이평전, 「1970년대 이병주의 회색인 사상과 유사 파시즘으로의 이행 연구」, 『한국문학과예술』, 2017.3, 5-32면.

이평전, 「이병주 소설에 나타난 '인정 투쟁'의 논리와 전개 양상 연구」, 『한국문학이론과 비평』78집, 2018.3, 32-59면.
이혜령, 「해방(기): 총 든 청년의 나날들」, 『상허학보』, 2009.10, 9-50면.
임정연, 「이병주 문학의 낭만성과 낭만적 아이러니」, 『우리문학연구』, 2021.4, 625-648면.
정미진, 「이병주의 대일인식과 한일협정의 기록」, 『국제어문학』 44호, 2019, 251면, 245-272면.
정미진, 「이병주 소설 연구」, 경상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7, 1-170면.
정주아, 「혁명 후에 남은 자들, 이병주 『그해 5월』에 나타난 4.19」, 『인문과학연구논총』, 2021.5, 73-98면.
정창훈, 「한일관계의 65년 체제와 한국문학」, 동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20, 1-206면.
조영일, 「학병의 정신구조에 대한 일고찰」, 『서강인문논총』47, 2016.12, 129-163면.
조영일, 「학병 서사 연구」, 서강대학교 대학원, 2015, 1-257면.

<Abstract>

Fictionalization of history, historicalization of fiction

Kim, Han-sik

Lee Byung-ju is a writer who has actually experienced a ‘hakbyeong’(student soldier). He recreated the time and space where colonization and liberation in his novels. For him, the story of the generation of ‘hakbyeong’ took on the character of a struggle for recognition. His novels trace the meaning of the near past. He tried to be recognized for the legitimacy of his memory and the legitimacy of his generation. He tried to integrate records and memoirs with fiction. It contained the desire to leave the novel as history, and the desire to compete with the record or memoir. This current view is based on the recognition of reality. His culturalism acquired during the colonial period also had a great influence on him and his novels. The anti-communism explicitly revealed in his novels is actually not far from this colonial culturalism. His culture was Western culture acquired through reading. Globalism, often found in his novels, did not overcome nationalism, but was a kind of a priori sense acquired through culture without experience.

Key words: ‘hakbyeong’, recognition, anti-communism, globalism, colonialism, culturalism

투 고 일 : 2022년 1월 29일 심 사 일 : 2022년 3월 10일
게재확정일 : 2022년 3월 10일 수정마감일 : 2022년 3월 20일